

가출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대한 해석적 연구

김 지 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요 약]

본 연구는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을 해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청소년이 가출 후 비행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그 사회적 맥락을 밝혀내려 하였다. 청소년이 가출 후 경험하는 상황과 비행 행동이 나타나는 사회적 과정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얻으며,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이들의 비행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려 하였다. 연구를 위해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11명을 심층인터뷰 하였으며, Denzin(1989)이 제시한 해석적 상호작용주의의 분석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은 다섯 단계로 출현하였다. 즉, 청소년은 가출 직후 아는 사람을 통하여 생존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도움을 받고, 점차 독립적으로 생계의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비행적 생계 방식을 배우고, 결국 비행으로 홀로 서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비행화의 과정은, 청소년이 생존의 방법을 찾는 행위이고, 거리라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의미를 가지며, 소중이 단절된 사회 속에서, 그러면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 국한하여 대처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사회 안에서 생존을 위한 대안을 발견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소통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함이 제언되었다.

주제어 : 청소년, 가출, 비행, 해석적 상호작용주의, 질적 연구

1. 서론

청소년의 가출은 집에서 이탈한다는 자체의 문제보다, 가출로 인해 접하게 되는 비행의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성인기에까지 이어지는 사회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청소년의 가출이 비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진 사실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93; 김향초, 1998, 2001; Yates et al., 1988; Terrell, 1993; Bradley, 1997; Hagan and McCarthy, 1997; Rohr, M. E., 1997). 가출 청소년의 비행은 실증적인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Whitbeck과 Simons(1990)가 156명의 가출 청소년과 319명의 성인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가출 청소년의 43%가 절도, 33%가 약물거래, 32%가 강도, 9%가 윤락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신림청소년쉼터에서 2001년에 서비스를 제공한 청소년 170명—남자 164명, 여자 6명—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24.1%가 절도를 하고, 10.0%가 약물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 절도, 성비행 등 어느 한 형태의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이 전체의 34.7%로 나타났다(신림청소년쉼터, 2001). 이렇듯 가출 청소년의 비행은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자주 그리고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더욱 학자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Hagan and McCarthy, 1997).

가출 청소년은 그들의 비행으로 인해 문제 있는 대상으로 취급되었고, 연구자들은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과생되었는지 연구하는데 주력하였다. 1970년대까지 사회과학자들은 가출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병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Jenkins, 1969, 1971; Stierlin, 1973; Olson, Liebow, Mannino, and Shore, 1980). 그러나 점차 가출 청소년의 비행은 가정, 학교, 또래 관계 등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환경으로 설명되었다(Walker, 1975; Brennan et al., 1978; Nye, 1980; Janus et al., 1987; Terrell, 1993; Nadon et al., 1998; Kaufman and Widom, 1999). 이들 연구들에서는 가정에서의 학대,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 방식,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감독의 부족, 학업 성취의 실패, 또래로부터의 거부, 비행 또래와의 연합 등이 청소년이 비행 행동을 학습하거나 반사회적인 심리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가출 청소년의 비행이 가출 후 사회적 경험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즉, 청소년이 가출 후 접하는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을 비행과 범죄에 가담하도록 유혹하거나 희생자가 되게 하며, 결국 청소년 자신이 비행을 하는 결과로 이끈다고 본다(Kufeldt and Nimmo, 1987; Lauritsen et al., 1991; Greene et al., 1997; Hagan and McCarthy, 1997; Kipke et al., 1997; Hoyt et al., 1999; Yoder et al., 2001). 이들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이 집에서 나온 후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주목하며, 합법적 취업 기회 부족, 비행적 기회 접촉, 거리의 비행적 집단과의 연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청소년이 비행 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가출 청소년과 그의 비행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개인을 병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상황으로 초점을 이동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가출 후 겪는

상황이 어떤 것이며, 이것이 청소년이 비행 행동을 채택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찰하는 데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된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양적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한 요인들을 추출하고 그 영향관계를 실증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연구를 통한 결과는, 특정한 요인들이 가출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단면을 제시할 뿐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그 과정을 세밀하게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청소년 비행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맥락을 밝히지 못함으로써, 청소년의 가출에 대하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에 대해 제시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비행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가출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상황은 어떤 것이며, 어떤 맥락 속에서 비행 행동을 하게 되는지 더욱 깊이 탐구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가출한 청소년이 비행화하는 과정을 발견하고, 이 과정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을 해석하여, 현상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려 한다.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가 진행되는 과정은 무엇인가? 가출 청소년이 비행화되는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가? 이것이 본 연구에서 탐구하는 주요 질문이다.

2. 이론적 배경

1) 용어의 정의

가출 청소년이란 일반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정의되어 사용된다(김향초, 1998; Roberts, 1987; Whitbeck and Hoyt, 1999). 그러나 이것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집에서 나온 경우로 가출을 제한한 협의의 개념이다. 미국 National Network of Runaway and Youth Services(1991)의 경우 집에서 내어쫓긴 청소년, 집이 없는 청소년, 거리 생활을 하는 청소년, 보호체계에 속해 있는 청소년 등을 협의의 가출 청소년과는 구분하면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범주로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집에서 이탈하여 있는 모든 청소년을 가출 청소년으로 포괄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집을 떠나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집에서 나온 경우 뿐만 아니라 집에서 내어쫓긴 경우,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 광의의 의미로 가출 청소년을 정의한다.

비행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를 포함하여 사회의 여러 가지 규범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9; 이상근, 1999). 청소년의 경우, 흡연과 음주와 같이 성인인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연령 때문에 용인되지 않는 행위까지 비행으로 포함되곤 한다. 이렇게 광의의 의미에서는 가출이라는 행위도 비행에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행을 폭력, 절도 등과 같이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 국한한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가출과 비행은 개념적으로 구분하려고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을 발견하는데 청소년이 가출 후 겪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경험에 초점을 두므로, 이러한 연구 목적에 맞도록 가출 후에 습득한 비행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연구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가출 전에 이미 습득하였던 비행에 대해서는 연구 수집과 분석에서 다루지 않았다.

2)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과 사회적 맥락은 비행 행동을 사회적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사회학적 범죄 이론으로 주로 설명되며 연구되었다. 이 가운데 성공을 위한 기회 구조에 초점을 둔 사회긴장이론, 환경과의 접촉에 의한 학습에 초점을 두는 사회학습이론, 청소년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에 초점을 둔 사회통제이론 등이 가출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제시되었다(한국형 사정책임연구원, 1993; Terrell, 1993; Baron and Hartnagel, 1998; Schaffner, 1998; Ennett et al., 1999).

사회긴장이론(social strain theory)에서는 사회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기회 구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한되어 있으며, 이 때 사회적 긴장이 발생하고 비행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합법적인 기회가 제한되어 있을 때 비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며(Merton, 1938), 범죄적 하위문화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공을 얻으려는 것으로 설명된다(Cloward and Ohlin, 1960). 이같이 사회긴장이론이 사회적 맥락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데 비해, 사회학습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은 더욱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비행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을 설명한다.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라고 보며, 따라서 비행을 비롯한 가출 청소년의 행동은 사회화 과정의 결과로 생산된 것이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사회화는 가족, 또래 집단 등 주요한 사회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같은 맥락에서, Sutherland(1947)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서는 청소년이 범죄적, 반사회적, 불법적 가치 규범을 습득한 사람들에게 노출됨으로써 그들의 가치, 규범, 행동을 학습하여 비행 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의 비행은 청소년이 거리에서 비행적인 가치와 행동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여 학습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설명된다.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비행으로 빠지지 않는 점에 주목하여, 그 사람이 사람들과 맺고 있는 유대관계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비행은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도덕적, 성서적, 심리적 유대가 약해지거나 단절되었을 때 일어난다고 설명된다(Hirschi, 1969). 결국 가족 또는 사회와 유대가 지속되는 한 청소년은 사회적 규범에 맞는 행동 방식을 유지하며,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될 때에는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져 비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서 가출 청소년의 비행은 청소년이 가출을 하여 기존에 청소년의 행동을 통제하던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고 단절

됨으로써 발생한다고 설명된다.

3)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비행화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연구는 최근, 상황을 정의하고 해석하는 행위자의 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되고 있다(Birkbeck and Lafree, 1993). 이것은 사회적 상황을 정형화하여 행위를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들이, 왜 동일한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행위를 나타내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비롯된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상황과 이 상황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밝혀내려 한다. 행위자가 상황에 대해 가지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행위자의 동기와 상황적인 기회를 연결시키면서, 비행이란 것을 상황적으로는 미리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개념화한다. 기존의 비행 이론들이 비행 행동을 어떤 요소들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였던 반면,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서는 비행이 성공적으로 일어나는데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과 질자에 주의를 기울인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비행화하는 과정의 복잡한 상황적 맥락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존 이론에 대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비판과 새로운 통찰에 기반을 둔다. 비행을 하게 되는 행위자 청소년의 주체적 경험과 이들이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사회적 경험의 상호작용적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서는, 상황의 복잡성을 그려내고 청소년을 상황적으로 근거한 행위자로 담기 위하여, 연구 방법에서 연역적이고 질적인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이론을 일반화하는 노력에 대한 집착을 유예하더라도, 행위자와 행의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 세계 속의 상황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구체적으로 발전해 내려 한다.

3. 연구 설계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과 그 사회적 맥락을 질적 분석을 통하여 밝혀내려 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현상을 탐구하고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해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질적 연구를 시행하는 다양한 입장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Denzin(1989)이 제시한 해석적 상호작용주의(interpretive interactionism)의 연구 관점과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해석적 상호작용주의 연구는 전통적인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접근과 하이데거를 비롯한 해석학(hermeneutics)의 전통 속에서 행해졌던 해석적, 현상학적인 작업을 결합시키며 제시된 것이다(Denzin, 1989). 이 때 해석적인 태도는, 상황과 그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인 방법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이남인, 2003)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상황이 개인으로부터 분리되어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해석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존재가 경험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석적 연구는 인간 사회의 현상을 마치 개인의 주관성을 배제하여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자연과학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며, 개인의 삶에서 해석적 과정을 통하여 경험되는 세계를 발견하려 한다.

해석적 상호작용주의 연구 방법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접근과 해석적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특히 사회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그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나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분야에 유용하게 제시된다(Denzin, 1989). 그 이유는 첫째,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접근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적 상황의 상호적 관계를 드러내며, 둘째, 해석적 관점으로부터 사회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주체의 경험을 밝혀냄으로써 사회적 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과는 다른 잘못된 해석에 기초하여 제도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적용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석적 상호작용주의 연구에서는 주체의 관점과 경험을 중요하게 다루며, 상황과의 상호작용 관계 안에서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과정에 대한 기술과 해석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여 어떻게 특정한 현상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가에 대해 설명을 제공한다(Denzin, 1989). 따라서 이러한 연구 방법은 본 연구와 같이 청소년이 가출 후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비행을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과정을 탐구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 주체의 경험이 반영된 사회 서비스의 방향을 제언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2) 자료 수집

연구를 위하여 가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11명에 대하여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연령은 14세에서 18세로 구성되었으며, 남자 8명과 여자 3명이었다. 가출 기간은 2개월에서 6년 이상으로 다양했다. 자료 수집을 위해 가출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기관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아동상담소, 쉼터, 그룹홈, 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6개 기관에 인터뷰를 의뢰하여 인터뷰에 응하는 청소년이 있는 경우 협조해 주도록 요청하여 청소년을 만났다.

연구 대상자인 청소년은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발적인 의사가 있고, 경험을 회상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지적 능력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또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가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과 상황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기 위한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의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연구기간은 2000년 4월부터 11월에 걸쳐 시행되었다. 면접 시간은 1~3시간 소요되었으며 청소년에 따라 1~2회의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청소년에게 비밀보장과 연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음을 고지하였으며, 청소년의 동의 아래 인터뷰 내용을 녹음한 후 녹취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인터뷰에서는 가출 후의 경험에 대하여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으며,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청소년의 대답을 명료화하고 청소년이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보충 질문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청소년의 가출 이후 생활에 대하여 어디서, 누구와, 얼마동안, 왜, 어떻게 지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비행과 관련된 행동 양식이 발견될 때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요청하였다.

3) 분석 절차

연구의 과정은 Denzin(1989)이 제시한 해석적 과정을 채택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해체하기(deconstruction), 포착하기(capture), 묶기(bracketing), 구성하기(construction), 맥락화하기(contextualization) 등 다섯 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해체 단계에서는 대상이 되는 현상과 관련된 이전 연구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한다. 포착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되는 경험과 관련된 자연적인 예들을 확보한다. 묶기 단계에서는 관찰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핵심적이거나 필수적인 양상들을 분리시킨다. 구성 단계에서는 사건이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며, 맥락화 단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현실 세계 속에서 가지는 의미를 밝혀낸다.

본 연구에서 해석적 과정의 다섯 단계 가운데 본격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포착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한 이후이다. 분석의 절차는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묶고, 구성하고, 맥락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묶기 단계에서 인터뷰 기록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에 관련된 상황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며 요소들과 기본 구조를 드러내고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다음 구성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밝혀낸 핵심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여 현상을 분류하고, 정렬하고, 재조립하여 관련된 전체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묶기와 구성 단계를 거치는 동안 발견된 주요 주제와 구조를 토대로, 이 구조들을 해석하고 이것이 실제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밝혀내어 맥락화하였다.

4) 연구자의 의미 체계

해석적 상호작용주의 연구방법에서는 상황이 개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해석 과정을 통하여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것은 현상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는 연구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연구자는 필연적으로 해석적인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해석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객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분석의 도구인 연구자 자신이 가진 의미와 가치 체계를 표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본 연구자의 경우, 가출 청소년을 상담하는 기관에서 실무자로 2년 남짓 활동했으며, 이러한 실무 경험이 자료를 분석하고 통찰하는데 기여를 하는 한편, 이미 형성된 지식과 편견이 있어 연구를 수집

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주요 선입견은, 가출한 청소년이 비행을 하는 것은 인성과 도덕의 문제보다는 그들이 경험하는 사회의 구조적 영향에 기인한 것이라는 시가이다. 철학적으로, 연구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후기근대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의 판단을 지양하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행위를 사회 체계와 담론의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해석적 연구가 연구자의 의미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개인의 지나친 주관성 때문에 자료가 왜곡되어 해석되는 오류를 피하려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 절차를 지침에서 제시하는 단계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하였으며, 질적 연구를 위하여 5인으로 구성된 동료 집단에게 인터뷰 기록 자료를 제공하여 자료로부터 주요 요소를 추출하고 현상을 개념화하는데 조언을 얻고 연구자의 해석이 적절한지 검토 받았다.

4. 연구 결과

1) 경험한 비행의 종류

자료를 수집하며 현상을 포착하는 단계에서 청소년의 비행으로 구걸, 절도, 강도, 윤락, 약물사용 등의 행동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청소년의 행동을 이러한 용어로 정의하는 것은 청소년의 언어 사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비행이라는 용어를 비롯하여 절도, 윤락 등 비행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외부적으로 정의된 것이었다. 청소년은 이렇게 분류되는 행위에 대하여 앵벌이, 찌라시, 초코렛팔이, 뿌리까기, 뺨치기, 뺨뜯기, 단란주점, 다방, 헌팅, 본드, 약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앵벌이, 찌라시, 껌팔이, 초코렛팔이 등은 구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앵벌이는 거리에서 차비가 없다며 돈을 구걸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옷이나 물건들을 구걸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철 계단이나 육교 등에 쓰러져 있거나 지하철 역, 철도 역 주변이나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구걸하기도 한다. 찌라시는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돈을 요청하는 내용의 전단지들 돌려 구걸하는 방법이다. 전단지의 내용은 주로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열심히 생활을 하였으나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것이다. 껌팔이나 초코렛팔이는 껌이나 초코렛을 사서 그 가격의 2배, 3배로 다시 팔아 돈을 얻는 방법이다.

뿌리까기, 뺨치기, 뺨뜯기 등은 절도나 강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용되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뿌리까기는 돈이나 옷이나 물건 등을 주인이 안 보이는 틈을 타서 몰래 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말한다. 주로 비어 있는 가게, 집, 차 등이 표적이 된다. 뺨치기는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때려서 혹은 몰래 지갑과 돈을 가져가는 방법이다. 청소년에 따라 아리랑치기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뺨뜯기는 자기보다 약한 아동 또는 청소년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돈을 빼앗는 방법이다.

단란주점이나 다방이라는 것은 윤락업에 해당하는 행위로 단란주점이나 다방에서 종사한다는 의미로, 손님을 접대한 대가로 돈을 받으며 성적 행위가 매개가 되곤 한다. 헌팅은 전혀 모르는 이성이 서로 즐길 것을 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하며, 놀아주는 대가로 돈이나 물질적인 대가를 받곤 한다. 한편, 본드, 약 등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약물 남용의 행위를 의미하였다. <표 1>은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가출 후에 경험한 비행 행동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비행 경험

	성별	구결			질도·강도			윤락업		약물
		앵벌이	찌라시	검팔이 초코렛팔이	뿌리까기	백치기	뺑뚱기	단란주점 다방	헌팅	본드·약
사례 1	남	○		○	○					
사례 2	남	○	○			○				○
사례 3	여	○					○	○		
사례 4	남				○		○			
사례 5	남	○			○					
사례 6	남	○			○					
사례 7	남		○		○					
사례 8	남			○	○					○
사례 9	여	○				○	○		○	
사례 10	남				○		○			
사례 11	여								○	

2) 비행화 과정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분리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청소년이 비행화하는 현상에 관련되어 중요하게 취급되는 개념들이 <표 2>와 같이 주요 요소들로 출현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요소들은 청소년이 비행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패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렬되었다. 이렇게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은 아는 사람 활용하기, 새로운 관계를 통한 얻어먹기, 독립적 생계의 대안 탐색하기, 비행적 생계방식 배우기, 비행으로 홀로서기 등의 다섯 단계로 제시되었다.

〈표 2〉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 분석

	비행화 과정	현상의 주요 요소
1단계	아는 사람 활용하기	배고픔, 갈 데 없음, 무작정 돌아다니기, 아는 사람들, 얻어먹기
2단계	새로운 관계를 통한 얻어먹기	만남, 도와준 사람들, 돌아다니다가 알게 됨
3단계	독립적 생계의 대안 탐색하기	먹고 살 길 찾기, 일자리 찾기, 거짓말로 먹고 살기,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음
4단계	비행적 생계방식 배우기	(비행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남, (비행적 방법을) 알게 됨, 따라다님, 역할을 맡음
5단계	비행으로 홀로서기	얻어먹기 힘들, 혼자 벌려고 참, 무서울 게 없어짐

(1) 아는 사람 활용하기

가출한 청소년의 특징적인 초기 모습은 갈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가출을 한 후 특정한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배회하고 다닌다. 이 때 청소년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생존의 위협이다. 배고픔과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

처음 나왔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빠들이나 언니들이 그러는데 처음 나오면 갈 데가 막상 없네, 그러니까 그랬더니 개가 난 집에는 죽어도 안 들어간다고, 개는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갈 데도 없는데요.

청소년은 먼저 친구, 친척, 아는 오빠, 후배 등 이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도움을 구하려 한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집에서 떠나 있으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누군가를 찾기 위해 돌아다닌다. 혼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전에 청소년은 먼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을 찾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적 자원은 도움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거나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소멸하게 된다. 활용하고 있던 자원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청소년이 집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가출이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면서, 청소년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하나씩 활용하여 결국 모든 자원이 고갈되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처음 가출했을 때) 무작정 안양으로 샀어요, 개네 친척집이 있거든요, 개네 친척집에 일주일 있었는데 개네 친엄마가 수원에 있대요, 개네 친엄마 나서 거의 한달 그 정도 살았어요, 개네 친엄마네 있다가 그냥 다시 집에 온 거예요.

첫날은 친구랑 같이 갔어요, 우리 동네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혼날 까봐 그냥 혼자 돌아다니다가...

인적 자원 네트워크는 가출 청소년의 초기 양상을 다르게 그려낸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인적 자원이 풍부한 경우에 청소년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면서 배회의 시간을 연장한다. 반면, 이용할 네트워크가 빈곤한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도움을 이용한 후에는 자원이 소멸되어 혼자 남는다.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가출에 따른 비행화를 완충하는 시기가 된다.

(2) 새로운 관계를 통한 얻어먹기

인적 자원이 소멸된 청소년은 스스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를 맞는다. 청소년은 혼자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생존의 방법을 활발히 탐색한다. 일차적으로 청소년은 생존의 문제를 사람에게 의존함으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 이전과 달라진 상황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새로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새로운 인적 자원을 발견하려고 시도한다. 음식점 주인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경험은 가출 후 혼자서 생존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했던 청소년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청소년이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때, 거짓말은 청소년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소통의 방식으로 경험된다. 청소년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시킬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동정심을 유발하는데 적합한 줄거리를 구성한다. 부모가 없거나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줄거리이다. 집에서 나왔다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적합한 소통 방식이 아니라고 경험한다.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치킨 피는데 있죠.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치킨집 앞에서 있으니까 아줌마가 집이 어디냐요. 집에 누가 있냐, 그래서 엄마 혼자 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치킨을 딱 주더마 갖고 가서 먹으래요.

우선요, 말을 잘하면 먹구 살아요, 말을 잘하면요 진짜 먹구 살 수 있어요. 거짓말도 잘하면 떡구 살아요. 유용하게 쓰여요, 거짓말두, 상당히 잘 쓰여요.

청소년은 새로운 사람으로 같은 또래의 청소년과 관계를 맺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채팅과 같이 대화를 하는 매체를 통하여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감으로써 만난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관계를 통하여 도움을 얻는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상대가 남성인 경우에는 관계를 형성하고 도움을 받는 양상이 더욱 활발하다.

화상(채팅)을 했어요. 다시, 화상을 하는데 한 명을 꼬셨어요. 그 오빠가 강원도 ○○ 살아요. 오래요 나보고 알아서 온다고 갔어요. ...그 오빠가 와 갖고 너는 집안일을 해라 난 돈 벌 테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그 오빠가 부른 이유가요 집 들어가게 만들라구 부른 거였어요. 집 들여보낼라구 나를. 같이 사는 게 아니구. 그래 거기서 일주일 있었다.

청소년이 이렇게 생계를 목적으로 구성된 인적 자원은 일시적이고 산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

며 안정된 네트워크로 쉽게 발전하지 않는다. 효용이 떨어지면 관계 자체도 소멸되고 다른 인적 자원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 단계에서 청소년은 새로운 정검다리가 놓이는 대로 다음 발을 디디며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고 관계를 맺는 청소년의 능력에 따라 이 단계는 지속된다. 청소년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도움을 받는 동안 직접적인 비행 행동으로의 진입은 연장된다.

(3) 독립적 생계의 대안 탐색하기

가출 청소년이 인적 자원을 통하여 생존을 해결하지 못하게 될 때, 청소년은 직접 행동을 취하여 방법을 찾는다. 이 단계는 청소년이 혼자 힘으로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 때의 대안은 청소년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의 대안이다.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양성은 거의 확보되지 못한다. 정보의 통로가 없이 혼자 남겨진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대안은 기존에 알고 있거나 우연히 알게 되는 몇 가지로 한정된다.

청소년에 따라서는 일을 통하여 돈을 구하려고 시도한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일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 저기 찾아다녔던 경험을 보고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다는 것을 경험한다. 또, 합법적인 직업에서는 신분 확인과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므로 청소년들은 집으로 보내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일을 피한다. 결국 연령으로 제한되고 신분 노출의 위험을 피하는 가출 청소년이 일을 통하여 지속적인 생존의 수단을 일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

하루는 아르바이트 구할려구요 계속 돌아다녔는데 못 구해 가지구요 새벽까지 뱅뱅 돌다가요...근데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힘들어요, 나이가 어려갓구. 그러구 나이가 어리면요 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내니까.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청소년은 생존의 방법으로 비행을 경험한다. 청소년은 먹을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거나 눈에 보이는 돈을 가지는 행동을 취한다. 청소년은 배가 고프다는 즉각적인 욕구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진다는 단순한 해결 방법으로 충족한다. 비행은 이렇게 청소년이 생각한 해결책을 시도함으로써 경험된다. 이 때 비행은 정교한 기술의 습득을 요구하지 않으며 혼자서 시행할 수 있는 형태이다. 이 단계에서 청소년이 이러한 경험적 시도를 생존의 주요한 방법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험을 통하여 이것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막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면 슈퍼가면 물건 같은 거 쌓아놓잖아요, 그거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먹고, 이리 저리 오락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배고프면 꼬마 에들 오잖아요, 가네가 오면 한 가지 좋은 점이 100원짜리가 몇 개가 있어요, 주머니에 뒀주머니나. 그걸 쓱 빼가지고 그걸루 사먹고 그랬어요. 그것도 오래 하진 않았어요, 나한테도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저다 배고프면 그랬고.

청소년의 경험적인 비행 행동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한두 번의 시도로 끝나기도 한다. 청소년에 따라서는 혼자 살아갈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청소년은 비행 행동을 지속적인 생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배고플 때 어쩔 수 없이 했던 간헐적인

사건들로 경험하고 있다.

(4) 비행적 생계 방식 배우기

청소년이 비행 행동을 주요한 생계 방법으로 삼게 되는 시점에서는 중요한 타인과의 접촉이 발견된다. 청소년은 거리에서의 생존 방식을 이미 터득하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이것이 청소년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갖는 분기점이 된다. 청소년은 이렇게 만난 사람을 통하여 생존의 방법에 대한 정보나 기술을 얻는다. 이렇게 알게 된 방법은 청소년이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롭고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 방식을 주체적으로 행하기에 앞서 청소년은 새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단계에서 청소년은 새로운 인적 자원을 형성하여 생존에 도움을 받으며 그들을 통하여 생존의 수단을 접촉한다.

가출한 청소년과 거리의 중요한 타인과의 접촉은 거리에서의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작점이 된다. 청소년은 처음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그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된다. 인적 자원이 소멸되었던 청소년에게 새로운 내용의 관계망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관계망은 거리의 생존 방식에 대한 각종 정보와 기술이 소통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이들은 거리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행한다. 이와 같이 초기의 인물은 일종의 문지기과 같은 역할을 하며 특정한 생존 행위와 관련된 정보와 기술이 전달되는 통로로 자연스럽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이 거리에서 처음으로 어떠한 인물을 만나느냐는 생존 방식으로 어떤 특정 행위를 하게 되는가의 단서가 된다.

혼자 돌아다니다가 ○○ 형을 만나가지고 △△역으로 같이 따라다니고 (돈은) 그 형이 짜라시를 해가지고 (벌었어요). 짜라시 돌릴 때는 그냥 따라다니고 있다가 근 일년 정도 있다가 내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뽕뜯는 거 개네(학교 자퇴한 애들) 만난 다음부터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돈 뜯는다는 생각을 안했어요. 그런.. 듣지도 못하구요. 그랬다가 알게 됐어요.

비행적 생계 방식에의 접촉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매체를 통하여도 이루어진다. 지역정보지, 인터넷 등은 가출한 청소년이 흔히 접근하는 정보 매체이다. 이러한 매체에 담겨진 구인광고는 숙식과 보수를 제공한다든 조건으로 청소년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유흥업소도 생존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탐색의 대상이 된다. 혼자 남겨진 갈 곳 없는 청소년에게 다방, 단란주점 등은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동시에 신분을 감추고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피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해석된다.

이상하게요 돈이 없구요 일할 데가 진짜 없잖아요 그럼 생각나는 게요 다방밖에 없어요.

전화를 일단 해봐요. 거기서(단란주점) 와보라 그래요. 어쩐지, 저길 가보면은 안되는 데도 있잖아요. 전화는 일단 다 오라 그래요. 저희는 집을 일단 나왔으니까 보호를 해줘요. 저희를 숨겨주고, 부모가 알아도 없다 그러고.

기존의 인적 자원을 소멸한 청소년은 거리에서 새로운 인적 자원을 접촉하고 관계망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이들이 가진 비행적 생존 방식을 접촉하게 된다. 비행적 생존 방식에 대한 정보와 기술은 관계망 안에서 공유되며, 청소년은 이러한 새로운 생존 방식을 습득하고 곧 주체적으로 행하기 시작한다.

(5) 비행으로 홀로서기

대안적인 생존 방식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기술을 접촉한 청소년은 이를 습득하고 주체적으로 행하는 단계로 진행한다. 청소년이 관찰하던 행동을 직접 행하게 되는 데에는 공통되는 동기를 경험한다. 더 이상 경제적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새롭게 형성한 인적 관계에 의존하여 얻어먹는 것이 일정 기간 후에는 더 이상은 용인되지 않는 시점에 이른다. 이 때 청소년은 그들이 하던 행동 방식을 ‘한 번 해보는’ 시도를 한다.

청소년이 비행적 생존 방식에 대하여 익숙해질수록 혼자서도 거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도 커진다. 관계망 안에서 청소년의 위치도 더 이상 의존의 상태가 아니다. 청소년은 가출 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한다. 한편, 가출 청소년에게서 약물의 사용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해결하려는 행위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은 짜라시와 같이 매우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할 때 이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적 방법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김팔이를 스스로 한 이유는) 얻어먹기가 힘들어, 차라리 애들한테 뭐 사 달라고 사 달라고 그 애들도 써야하는데 나 배고플 때만 사달라고 하는데 그 말 한 마디 하는 게... 나도 쓸 돈은 있어야 될 것 아니 예요.

(직접 짜라시를 한 건) 4달 정도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내가 한다고 했어요. ...돈버는 애들 옆에서 빌붙으니까 애들이 낫대. 그러가지고 그 때는 무조건 뒤에서 욕하는 게 싫어가지고요. 혼자 배우면서 시작해가지고요, 짜라시 옆에서 하는 거 보고 아껴 달라고 약(약물) 먹을 때 옆에서 하는 거 보고 나도 할 수준 정도 되니까 그 때부터 앵벌이도 하고, 혼자 빌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청소년이 비행적 생존 방식을 접촉하고 습득하는 과정에 강입이 존재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에서는 청소년을 외부의 접촉과 차단하여 새로운 방식을 탐색할 통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감시와 통제의 망을 갖추어 청소년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생존의 방식을 찾기 위해 유흥업소에 접촉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것이 탐색으로 종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연장되기 쉽다.

저희가 집을 나온 상태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니까, 그걸 이용해요. 그리고 '저 나갈게요'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못살겠다고 집에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너 학교에다 이런 걸 말하면 어떻게 되겠니, 집에다 이런 걸 말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런 걸 약점을 잡아갔고요. 벗어나게 해요, 절대로.

이상에서 기술한 청소년이 비행화되는 다섯 단계의 과정은 모든 가출 청소년이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에 따라, 가출 초기에 기존에 형성하여 있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한 경우에는 초기 단계가 오래 지속되다가 귀가하여 비행으로 진입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가출 직후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으며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얻어먹을 능력도 없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 없이 바로 비행을 경험하고 접촉하고 습득하여 빠른 속도로 비행화될 수 있다.

하나의 생존 방식을 터득한 청소년은 새로운 기회를 통하여 또 다른 생존 방식을 접촉하고 이를 시도하며 방법의 변화를 갖기도 한다. 청소년이 또 다른 대안을 발견하는 것은 또 다른 행동 영역에 대한 문제기 역할을 하는 새로운 타자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이 다양한 생존 방식을 경험하는 과정은 여러 방식에 대한 나열을 통한 비교와 선택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나타난다. 청소년이 거리에서 살기 위한 생존의 방식들을 알게 되는 과정은 이렇게 지도 없는 여행과 같이 길을 가르쳐주는 누군가의 손짓에 따라 해매고 돌아가며 얻어진다.

3) 비행화의 맥락적 해석

가출 청소년이 비행화하는 현상과 관련된 주요한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구성함으로써 다섯 단계의 과정이 출현하였으며, 이 과정은 다시 상황적 맥락 안에서 분석되었다. 그 결과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은, 가출한 청소년이 도망하면서 생존하고 거리에서 성장하는 의미를 가지며, 소통의 단절과 사람의 망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해석되었다.

(1) 도망하며 생존하기

청소년은 가출한 후 하게 되었던 비행 행동에 대하여 먹고 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가출한 청소년은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을 보내며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비행은 그 과정에서 발견된 대안들로 해석된다. 청소년들은 비행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등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배가 고프니까'라는 원초적인 동기에 의해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돈을 구하고 먹고 잘 곳을 마련하는 방법을 안 청소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적인 과정으로 비행 행동을 한다.

가출한 청소년이 생존의 방법을 찾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직업을 찾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중요한 차이는 청소년이 무엇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택하는 생존 방식의 중요한 전제는 집으로 억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와 보고들을 통해 익히 알려진 대로 많은 청소년이 신체적, 성적 학대 등과 같이 집에 있을 수 없는 이유로 가출을 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의 행동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될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해석이 발견된다. 밀리 떠나기, 한 장소에 오래 있지 않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기, 얼굴을 가리기, 신분 감추기 등의 행위는 자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결과로 드러난다.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취업 질자도 선택하기 어려운 내안이다. 분명한

신분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청소년이 찾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다. 이렇게 제한된 내안 속에서 청소년은 '아무도 모르게' 비행을 한다.

(2) 거리에서 성장하기

청소년기는 신체가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이다. 신체적으로는 신장과 체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발달한다. 또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진로를 계획하여 심리·사회적으로 성장해야 할 과업을 가진 시기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 동안 청소년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보호되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유예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집을 떠난 청소년은 이 성장기를 거리에서 맞는다. 거리에서의 성장기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발달 단계라고 전제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다르게 진행된다. 부모도 없고 학교도 없다.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인 발달도 쉬운 일이 아니다. 성적 발달에 대해서도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심리적 문제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 청소년의 발달과업에서 중요한 학업과 진리는, 생존이라는 더욱 중대한 과업에 가려진다.

결국 이들은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발달 과업을 뒤로 하고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묻는다.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돈을 벌까의 문제가 이들의 발달 과업이 된다. 사회는 청소년이 이러한 고민을 가질 필요가 없도록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청소년은 학대와 같이 집에 있을 수 없는 이유로 끊임없이 집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는 동안 청소년은 거리에서 성장한다. 거리에서 이들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거리에서 살아가는 방식—비행적 생존 방식—을 터득한 사람들이다. 청소년은 자신에게 대안을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고 이들의 방식을 보고 배운다. 거리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동안 청소년은 성장한다. 거리에서 관계를 맺고, 먹고 자는 법을 배우고, 비행의 여러 대안들을 습득하며 결국 혼자서도 살 수 있게 되는 과정으로 청소년은 발달한다.

(3) 소통의 단절

가출 청소년은 가출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구걸을 할 때에는 차비가 없다고 혹은 부모가 없다고 말한다. 경찰서에서는 집이 없다고 말한다. 청소년들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가출했다는 말은 청소년이 생각하기에 직질한 소통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출했다고 하면 다른 도움에 앞서 우선 집으로 보내진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사회 안에서 가출이라는 말은 소통의 코드가 되지 못한다. 청소년은 원하는 것—주로 돈—을 얻을 수 있는 코드로 소통을 한다. 청소년 가운데 앵벌이, 찌라시 등과 같이 구걸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은 동정을 얻는 줄거리를 만들어 사람들과 소통한다.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윤락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은 성이 통로가 된다. 절도와 같이 소통의 단절을 전제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집에서 나왔지만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은 욕구, 문제가 해결되어 집에 들어가도 괜찮을 때 돌아가겠다는 생각 등을 전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려

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청소년에게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며 집으로만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사회와 청소년 사이의 소통의 문은 닫히고 만다. 청소년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기는 하지만 굳게 닫힌 벽 안에서 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가출한 애들 보면 다 나쁘고 다 공부 못하고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고 그런 손가락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애들을 잘 돌보지 못한 부모들이 많은데 무조건 가출한 애들이 나쁘다고 하면 솔직히 진짜 어른들 믿기 싫거든요.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구요.

꿈이 있는 애들은요, 말해주면 (그룹홈에) 와요. ...제가 꿈요 선택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진짜 7살 때부터 꿈이었어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4) 사람의 망

가출 후 비행화 과정은 청소년 주변에서 사람의 망이 형성되고 소멸되고 다시 형성되는 과정과 함께 전개된다. 청소년은 중요한 관계 체계인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가족과 관련된 사람과의 관계도 점차 잃는다. 기존의 관계들을 잃으면서 거리에서 형성하는 새로운 관계의 망도 만들어진다. 아직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청소년은 징검다리를 건너듯 사람으로 놓인 돌을 밟고 거리에서의 어려움을 헤쳐 간다.

사람의 망은 청소년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망이 된다. 그리고 사람의 망은 청소년이 비행화로 진행되는 위험을 완충한다. 사람으로부터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도움을 받는 동안 청소년은 자신이 직접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탈적인 행동을 취해야할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안전망이 더 이상 청소년을 지탱하지 못하게 될 때 청소년은 새로운 망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망은 비행적인 방법으로 생존하게 하는 그물망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은 이렇게 만들어진 그물망을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경험하거나, 다른 그물망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누군가의 힘에 의해 그물망에 갇혀, 오랫동안 비행적 생존 양식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 관계망을 만드는기는 청소년의 비행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청소년은 관계 속에서 생존을 위한 직접적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생존의 방법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습득하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가 모두 소멸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비행적 관계망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세계의 전부가 되기 쉽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을 해석적 상호작용주의의 접근 방법으로 연구하여, 그 사회적 과정과 맥락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가출 청소년이 비행을 습득하는 사회적 과정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났다: “청소년은 가출 직후 아는 사람에게 의존하여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여, 아는 사람의 도움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되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생계를 의존하고, 의존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독립적인 생계의 대안을 탐색하는 시기를 거치다가, 비행적 생존 방식을 터득하고 있는 중요한 타인을 통해 비행을 접촉하고, 결국 비행적 방식을 습득하여 혼자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상태에 이른다.”

맥락적으로 이것은 청소년이 거리에서 생존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며 성장하는 과정으로 요약되었다. 여기에 청소년의 도망하려는 속성과 이들에 대한 기회와 소통이 제한되어 있는 사회 구조가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현상으로 발견되었다. 사람과의 관계는 생존의 방법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상황적 요소로 나타났으며, 비행화도 이러한 사람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가출 청소년의 비행 행동을 청소년 개인이 아닌 사회적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함으로써, 가출 청소년의 비행 행동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것은 가출 청소년을 만나는 실무자뿐만이 아니라 관련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과 일반인에게 모두 의미 있는 관점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가출 청소년의 비행 행동을 보고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결국 이들이 문제 있는 집안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시각은 문제 해결의 출발을 청소년 개인에게 집중시키며, 디더욱 청소년을 낙인시키고 사회로부터 도망치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보인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의 비행 문제를 청소년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접근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가출 청소년의 비행 행동이 생존을 위한 대안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이 비행을 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대안을 사회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비행에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 단계적 과정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가출 후 초기에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므로 가출 전 사람들과 형성하는 관계의 토대가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한편, 청소년이 개인적 관계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대안이 되는 새로운 안전망으로서 사회적인 체계가 구축되고 확충될 필요가 있다. 쉼터나 그룹홈은 가출한 청소년이 안전한 공간에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귀가나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도움으로써 가출 초기단계에서 비행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비행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출 청소년을 비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역에 서비스가 배치되고 요구되는 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 구축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출 청소년이 이 사회 안에서 상당한 소통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가출 청소년에게서 소통이란 기회의 구조이기도 해서, 생애의 경험과 성장을 이끌고 제한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도망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적절한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기 위해 먼저 가출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수정되고 깊이 있는 이해가 사회 전반에 확산

되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자신의 가출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문제가 청소년에게 있으며 집으로 돌려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더 이상 가출 청소년에 대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들이 청소년의 가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돕는데 참여하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직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 대상은 가출 청소년 서비스 기관의 실무자 외에도, 교사, 경찰, 지하철 역무원, 가출 청소년이 밀집해 있는 거리의 상점 등 가출 청소년과 접촉하는 주요 집단과, 더 넓게는 일반인에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한편, 연구 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가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상황에서는 제한된 소통의 체계를 가지기 쉬우므로 이들과의 소통을 열 수 있도록 사회가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 청소년 생존의 대안으로 마련된 사회 서비스들은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근접하여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쉼터, 그룹홈 등을 포함하여 각종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거리상담,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서비스 안내 등의 노력은 소통을 위하여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위로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활동이 아직은 소극적인 수준인데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드롭인 센터(drop-in-center)와 같이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청소년이 자유롭게 머물다 가는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서비스 기관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경찰과 같이 청소년들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체계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출 청소년들이 밀집된 지역의 경찰들은 가출 청소년과 관련 서비스를 알고 연결할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가출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발견되며 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비행을 해석하는 이 관점은 청소년의 질도, 구걸, 유락 행위 등과 같이 금전과 관련된 비행 행동에 대하여 설명력을 갖지만 약물 사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약물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가출 청소년의 약물의 사용은 더욱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자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찰이 부족하였으며 성과 관련된 구조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대한 의존 방식을 통해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있었으나 이를 맥락적으로 분석해 내지는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이 겪는 가출과 비행의 경험을 남성의 경험과 비교하도록 연구를 설계함으로써 이러한 성과 관련된 사회적 맥락을 발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가출 이후 비행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었으며 가출 이전에 습득된 비행에 대해서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출 이전의 비행 경험이 이후의 비행 경험에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출 이전의 비행 경험과 이후의 비행 경험의 상호작용 관계를 고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역동을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으며 특히 해석적 접근을 사용하여 현상과 분리되지 않는 존재로서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을 인정하고 있어서,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분리된 실체로서의 현상보다는 상황 속에서 해석의 주체인 개인이 경험하는 과정으로서의 현상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데 인식론적 입장 차이가 있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방법을 택함으로써 객관성과 타당성을 충족시키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비행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가 가출을 경험한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발견되는지, 이 결과를 모든 가출 청소년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면, 양적 연구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 설계를 통한 후속 연구가 따라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향초, 1998. 『가출청소년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향초, 2001.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개입방법』. 서울: 나눔의 집.
- 신림청소년쉼터, 2001. 『2001 사업보고서』. 서울: 서울시립신림청소년쉼터.
- 이남인, 2003. 『현상학과 해석학의 철학적 이해』. 한국질적연구센터 2003년 하계 워크샵 자료집.
- 이성구, 1999. 『비행 청소년의 이해』. 서울: 제3공간.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가출청소년보호시설 매뉴얼개발』.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한국여성개발원, 1999. 『여학생비행의 실태와 학교의 대응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aron, S. W., and T. F. Hartnagel, 1998. "Street youth and criminal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2): 166-192.
- Berkbeck, C., and G. LaFree, 1993. "The Situational Analysis of Crime and Devian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 113-137.
- Bradley, J. 1997. *Runaway youth: stress,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NY: Garland publishing Inc.
- Brennen, T., D. Huizinga, and D. S. Elliott, 1978. *The Social Psychology of Runaways*. Toronto: Lexington.
- Chesney-Lind, M. 1989. "Girl's crime and women's place: Toward a feminist model of female delinquency." *Crime & Delinquency* 35(1): 5-29.
- Cloward, R. A., and L. E. Ohlin. 1960. *Delinquency and Opportunity*. The Free Press.
- Denzin, N. K. 1989. *Interpretive Interactionism* (2n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Ennett, S. T., S. L. Bailey, and E. B. Federman, 1999.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risky behaviors among runaway and homeless you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March): 63-78.
- Greene, J. M., S. T. Ennett, and C. L. Ringwalt. 1997. "Substance use among runaway and homeless youth in three national sampl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 229-235.
- Hagan, J., and B. McCarthy. 1997. *Mean Streets: Youth Crime and Homelessnes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yt, D. R., D. D. Ryan, and A. M. Cauce, 1999. "Personal victimization in a high-risk environment:

-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6(4): 371-392.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nus, M. D., A. McCormack, A. W. Burgess, and C. Hartman. 1987. *Adolescent Runaways: Causes and Consequences*. Toronto: Lexington Books.
- Jenkins, R. 1969, "Classification of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5: 1032-1039.
- Jenkins, R. 1971. "The runaway reac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8: 168-173.
- Kaufman, J. G., and C. S. Widom. 1999. "Childhood victimization, running away,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6(4): 347-370.
- Kipke, M. D., J. B. Unger, S. O'Connor, R. F. Palmer, and S. R. LaFrance. 1997. "Street youth, their peer group affiliation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residential status, subsistence patterns, and use of services." *Adolescence* 32(127): 655-669.
- Kufeldt, K., and M. Nimmo. 1987. "Kids on the street, they have something to say: Survey of runaway and homeless youth." *Journal of Child Care* 3: 53-61.
- Lauritsen, J. L., R. J. Sampson, and J. H. Laub. 1991. "The link between offending and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Criminology* 29(2): 265-291.
- Merton, R.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672-682.
- Nadon, S. M., C. Koverola, and E. H. Schludermann. 1998. "Antecedents to prostitution: Childhood victim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2): 206-221.
- National Network of Runaway and Youth Services. 1991. *To Whom Do They Belong? Runaway, Homeless, and Other Youth In High-Risk Situation in the 1990s*. Washington, D.C.: Author.
- Nye, F. I. 1980.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running away." *Journal of Family Issues* 1: 1-11.
- Olson, L., E. Liebow, F. Mannino, and M. Shore. 1980. "Runaway children ten years later." *Journal of Family Issues* 1: 165-188.
- Roberts, A. R. 1987. *Runaways and Non-runaways: An Exploratory Study of Adolescent and Parental Coping*. IL: The Dorsey Press. 나동석·이용교 역. 『가출청소년연구: 청소년과 부모의 대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Rohr, M. E. 1997. *Adolescent Runaway Behavior: Who Runs and Why*. NY: Gardland publishing Inc.
- Schaffner, L. 1998. "Searching for connection: A new look at teenaged runaways." *Adolescence* 33(131): 619-627.
- Stierlin, H. 1973. "Family perspective on adolescent runaway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9: 56-62.
- Sutherland, E.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Terrell, N. E. 1993. *The Violent World of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An Investigation of Severe Risk Factors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 Ph. D.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Walker, D. 1975. *Runaway Youth: Annotated Bibliography and Literature Overview*. Washington, D.C.: Office of social services and human develop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Whitbeck, L. B., and D. R. Hoyt. 1999. *Nowhere to Grow: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NY: Walter de Gruyter, Inc.
- Whitbeck, L. B., and R. Simons. 1990. "Life on the street: The victimization of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Youth and Society* 22: 108-125.
- Yates, G. L., R. MacKenzie, J. Pennbridge, and E. Cohen, 1988. "A risk profile comparison of runaway and nonrunaway you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8: 820-821.
- Yoder, K. A., L. B. Whitbeck, and D. R. Hoyt. 2001. "Event history analysis of antecedents to running away from home and being on the stree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1): 51-65.

An Interpretive Study on Delinquency Experiences of Runway Youths

Kim, Jihye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ss that youths get involved in delinquent behavior after runaway. The experiences of runaway youths are studied interpretively, so that interactive features between situations and the youths are revealed. In this way, it is expected that directions in social services to prevent and intervene with delinquent behaviors of runaway youths can be suggested. Eleven youths who have experienced running-away participated in the in-depth interviews. Their narratives are interpreted through the procedures of interpretive interactionism by Denzin(1989).

Five phases of the delinquency process have been discovered: Using personal resources, getting help from new relationships, exploring alternatives to survive, learning delinquent way of living, and living independently through delinquency. Interpreted contextually, it has been founded that delinquency is a behavior to survive and a developmental process on the street, taking place in a situation of blocked communication, nevertheless within people's networks. Thus, it is suggested that the problem of runaways are not to be treated narrowly as responsibilities of the youths themselves or their families, but to be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providing social service systems that work as a safety network and offer alternatives for the youths to survive, to resolve their troubles, and to keep healthy lives.

Key words : youth, runaway, delinquency, interpretive interactionism, qualitative study

[접수일 2003.4.25 게재확정일 2003.7.10]